

[ 종합·해설 ]

국감 중반전 여야 핵심 전략은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3일로 중반전에 접어들었다. 지난 일주일의 국감은 미국 발 금융위기가 우려 속에 국민의 관심을 얻는데 실패했지만 여야는 앞으로 남은 국감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쥐기 위해 더욱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쟁’ 버리고 ‘정책 국감’ 승부

경제 이슈 부각 치열한 공방 펼칠듯

◇여당(한나라)=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위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감이 ‘정쟁의 장(場)’으로만 비친 점에 대해선 집권여당으로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향후 정책국감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죄는 각오를 다졌다. 한나라당은 이번주 국감에서도 야당이 정치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 이를 막는 데 당력을 모으는 계획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는 ‘맞불작전’을 구사, 야권의 공격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또 다소 미진했던 정책국감 실현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 입법화를 목표로 국감 이슈화를 공인했던 중부세 및 법인세 완화, 집단소송법안을 핵심으로 하는 ‘대법 방지법’, 공기업 개혁문제 등의 현안을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 한국경제를 좌우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국회 처리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적극 주도한다는 복안이다.

◇야당=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보건복지위, 교육과학기술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등 쟁점 상임위에서 이슈제기에 성공,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며 어느 정도 선전을 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소수야당의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데다, 스타 플레이어가 부족하고 야성(野性)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서 역부족을 절감했다. 이에 따라 남은 기간 상임위별 팀플레이 강화를 통해 역량을 배가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 핵심 이슈의 쟁점화에 전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매일 상임위별 전략회의를 열어 공동대응 체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가적 문제인 경제 이슈에 집중,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 등 경제전선을 최대한 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오른쪽 발언자는 김효석 민주당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각시키기로 했다. 특히 정부 여당의 국감 무력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각오다. 그 연장선상에서 강만수 장관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봉화 차관에 대한 위증죄 고발을 추진키로 하고 피감부처 장관 중 합력가를 실시, D등급에 대한 경질을 요구

키로 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자유선진당은 납부사, 국토균형발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선진당의 가치를 살리면서 지역적 기반을 넓힐 수 있는 분야에 주력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제 위기에 문힌 국감... 초반 ‘낙제점’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 전반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의 초반 성적표가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12일로 국감 전체 일정의 3분의 1을 소화했지만, 국감장에서의 고성과 감정적 대치 등 구태의연한 모습이 재연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경제 위기로 국감 무관심=미국발(發) 금융 위기로 촉발된 경제 위기는 국감에 대

한 무관심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YTN 사태를 고리로 한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 탤런트 최진실씨의 사망을 계기로 재검토된 사이버 모욕죄, ‘특권층 바자기’ 논란을 수반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등 급진적인 이슈들이 있었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은 주요 이슈에 대한 논쟁 자체를 잠재우는 상황이다. ◇‘스타’ 부재 국감=역대 국회에서는 국감 기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메가톤급이

슈가 터져나왔다. 특히,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초반 무대에서 ‘국감 스타’와 여야의 ‘저격수’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과거보다 투명해진 정치·사회적 환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여야 공수 전환이 된 탓이다. 장기간의 쇠퇴기 정국에 따른 부실한 국감 준비, 초선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의 비판력 부재 등이 ‘맥 빠진’ 국감으로 이어졌다는 관측도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전한 구태와 파행= 이번 국감에서도 여야간 신경전과 공방으로 인한 파행과 구태는 여전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 일부 상임위는 파행으로 얼룩졌다. 지난 7일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감은 YTN의 노조원 집단 해고와 관련, 민주당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한나라당과 비교협단체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국감이 됐다. 같은 날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감에서는 민주당 최철국 의원의 지적에 불만을 품은 공단 임원이 답답함을 집어던지고 협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국감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고속도 설계변경 추가비용 ‘눈덩이’



광주·전남에서만 477억원

고속도로 공사 중 잦은 설계변경으로 광주·전남에서만 477억원의 막대한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내놓은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한국도로공사 공사 중인 16개 사업 87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240회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1천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선별로 대전-당진 노선이 9개 공구에서 6번씩 변경돼 총 54회로 가장 많았고, 전주-광양 노선이 16개 공구에서 3번씩 48회, 서천-공주 노선이 7개 공구에서 6번씩 총 42회, 목포-광양 노선이 26회를 각각 기록했다. 이로 인해 목포-광양 노선에서 254억, 인천대교 연결도로 공사에서 180억원, 전주-광양 노선에서 115억원, 동광주-고서 노선에서 8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되는 등 16개 사업의 총 공사비가 당초 8조3천376억원에서 8조2천572억원으로 1천196억원이 늘어났다.

중 영남 출신은 12명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특히 핵심 부서인 민정 1, 2차서관실로 파견된 12명 중 6명이 영남 출신이고 이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이 5명이 나왔다.

“교육공무원 과로사 많다”

지난 2003년 이후 과로사한 공무원 가운데 교육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유승민 의원은 12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올 8월까지 과로사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285명, 지방공무원 129명 등 총 41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육부에서 지난 5년간 120명의 공무원이 과로사해 29.0%를 차지했고 경찰청이 60명(14.6%)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두 기관을 합치면 180명으로, 전체 공무원 과로사의 절반에 가깝다.

‘집회시위 참관단’ 형식적 운영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과 경찰의 과잉대응 예방을 위해 창설된 ‘집회시위 시민참관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인기(사진)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집회시위 시민참관단 운영 실적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2006년 5월 이후 시민참관단이 집회현장을 직접 참관하는 비율은 매년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올해 1월~8월 3천527건의 집회현장 가운데 377곳만 시민참관단이 방면에 참관을 10.69%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박지경·김지욱기자 jkpark@kwangju.co.kr

“靑 파견 경찰도 영남 일색”

청와대 등 주요 권력기관에 파견되는 경찰의 대부분은 영남 출신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들은 경찰청에서 외부기관으로 파견된 직원 87명의 파견 현황을 받아 분석해 본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반면, 이명박 정부 들어 위상이 약화된 각종 위원회에 비 영남경찰 위주로 파견됐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대통령실의 경우에도 전체 23명의 파견 경찰

Advertisement for 'Gwanneung Education' (곽내영교육학) featuring a large logo,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about a 4th special lecture on education theory.

Advertisement for 'Namseong Gwanhanhim' (남성강한힘) featuring a product image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men's health and vitality.

A large advertisement for 'Sanhaeng' (산행안내) providing detailed hiking routes and schedules for various locations like Gwangju, Jeonnam, and Jeonbuk.